



LPGA 한국 100승 '눈앞'

최나연 세이프웨이 클래식 2R 3타차 1위
오늘 최종라운드 ... 루이스 등과 우승 다툼

최나연(24·SK텔레콤)이 '코리안 남자'들의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00승 합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지난해 LPGA 투어 상금왕과 최저타수상을 차지한 최나연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노스 플레인스의 펌프킨 리지 골프장 고스트 크리크 코스(파71·6552야드)에서 계속된 세이프웨이 클래식 2라운드에서 버디 3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2언더파 69타를 쳤다.

1, 2라운드 합계 8언더파 134타를 기록한 최나연은 스테이시 루이스(미국·5언더파 137타)를 3타 차로 제치고 이틀째 단독 선두를 달렸다.

지난해 2승을 거두는 등 화려한 성적을 냈던 최나연은 올해는 12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은 하지 못하고 톱10에 다섯차례 이름을 올리는데 그쳤다.

최나연이 3라운드에서도 선두를 지키면 시즌 첫 우승과 함께 한국여자골프공단의 LPGA 투어 통산 100번째 우승컵을 차지하게 된다.

최나연은 정교한 아이언샷으로 볼을 그린 위에

올렸지만 1라운드 때만큼 퍼트가 받쳐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3번홀(파3)에서 버디를 잡은 최나연은 8번홀(파5)과 9번홀(파4)에서 잇따라 버디 퍼트를 놓쳐 타수를 많이 줄이지 못했다.

최나연은 10번홀(파5)에서도 페어웨이 우드로 친 두 번째 샷으로 볼을 홀 3m 앞에 떨어뜨렸지

만 아깝게 이글 퍼트를 놓쳐 1타를 줄이는데 그쳤다. 12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 잠시 흔들렸지만 15번홀(파5)에서 버디로 만회한 뒤 더 이상 타수를 잃지 않고 2라운드를 마쳤다.

최나연은 한국시간 22일 오전 5시35분 루이스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다툰다.

최나연과 동반 플레이를 펼친 박지은(32·나이키골프)은 2타를 잃고 공동 4위(2언더파 140타)로 떨어졌다. 세계랭킹 1위 청아니(대만)는 2언더파 69타를 쳐 박희영(24·하나금융그룹) 등과 함께 공동 7위(1언더파 141타)로 올랐다.

/연합뉴스

김경태 PGA 원년챔피언십 3R 11위 '경총'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원년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상위권으로 뛰어올랐다.

김경태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의 시지필드 골프장(파70·7130야드)에서 열린 대회 셋째날 버디 7개를 쓸어담고 보기 2개를 곁들여 5언더파 65타를 적어냈다.

중간합계 9언더파 201타를 친 김경태는 전날 공동 44위에서 순위를 대폭 끌어올려 폴 케이시

(잉글랜드), 짐 퓨릭(미국) 등과 함께 공동 11위로 3라운드를 마쳤다.

6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에 오른 웬 심스(미국·15언더파 195타)과는 6타차다. 중간합계 13언더파 197타를 친 토미 게이니(미국)가 2위에 올랐다.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PGA 투어 신인 강성훈(24·신한금융그룹)은 버디 2개를 보기 2개로 맞바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해 공동 50위(5언더파 205타)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최나연이 21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린 LPGA 세이프웨이 클래식 2라운드 4번 홀에서 세 번째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일 통합 명인전 박영훈 9단 우승



박영훈 9단이 한·중·일 통합 명인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한국 명인인 박영훈은 20일 중국 후난성 창더사에서 열린 제2회 창더배 세계바둑명인전 결승에서

중국의 장웨이지에 5단에게 132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며 우승했다.

박 9단은 초반 좌변에서 6점을 버리는 사석 작전으로 유리한 판세를 만든 뒤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하반 침투에 성공해 승기를 잡았다. 장웨이지에는 중앙 전투에서 승부수를 띄웠으나 박 9단이 정확하게 응수하자 일찌감치 돌을 던졌다.

박 9단은 지난 17일 1차전에서 일본의 이마이 유타 9단을 꺾고 결승에 선착했다.

중국기원과 인민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 우승상금은 30만 위안(약 5100만원)이다.

/연합뉴스

이정은 벵스 마스터피스 우승

이정은(23·호반건설)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벵스 마스터피스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정은은 21일 제주 예코랜드 골프장과 아일랜드 코스트(파72·6427야드)에 짙은 안개가 끼어 마지막 라운드를 취소됨에 따라 3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02타로 선두에 나섰던 이정은이 올해 처음 우승하면서 개인 통산 네 번째 정상에 올라 상금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용규 81일만에 홈런포

KIA 이용규가 21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넥센과의 경기에서 1-1로 맞선 5회초 심수창을 상대로 투런포를 친 뒤 3루 백인호 코치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도로공사 남녀 우승

수원·기업은행 컵대회 ... MVP 남 김학민·여 김선영

대한항공과 도로공사가 올해 프로배구 시즌을 알리는 수원·IBK 기업은행 컵대회에서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

신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한항공은 21일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11 수원·IBK 기업은행컵 프로배구대회 남자부 결승전에서 에이스 김학민(22점)의 폭발타를 앞세워 우리캐피탈을 세트 스코어 3-0(27-25 25-13 25-14)으로 완파해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대회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컵대회에 이어 지난 시즌 정규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준우승에 머물렀던 대한항공은 이번 우승으로 큰 경기에 약하다는 징크스를 깨고 남자 프로배구의 새로운 '명가'로 발돋움하며 3000만원의 상금을 챙겼다.

공격 득점 1위에 빛나는 김학민은 발목 부상에도 대회 내내 화려한 강타를 퍼부으며 상대 코트를 뒤흔들었다. 결승전에서도 60% 이상의 공격성공률로 양팀 최다인 22

점을 올려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김학민은 이번 대회에서 총 102점을 올리며 박철우(삼성화재)의 뒤를 이어 득점 2위에 올랐다.

이어서 열린 여자부 결승전에서는 도로공사가 김선영의 강타를 앞세워 KGC인삼공사를 세트스코어 3-2(25-23 21-25 20-25 25-19 15-7)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창선 감독이 이끄는 도로공사는 이번 대회 준결리그에서 먼저 2승을 올리며 가장 먼저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결승에는 여러번 진출했지만 항상 우승의 문턱에서 주저앉았던 도로공사는 이번 대회에서 프로배구 출범 이래 첫 우승을 일궈내며 정규 시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도로공사는 공격(62-56)에서 인삼공사에 앞섰고 김선영이 홈런 25점을 올리고 하준임과 황민경, 표승주가 각각 두자릿수의 득점을 올리며 팀 우승에 기여했다.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도로공사는 마지막 세트에서 초반부터 앞서나갔고 마지막에 김선영의 통렬한 스파이크 서브가 그대로 들어가면서 기나긴 접전의 끝을 냈다.

나흘로 25점을 수확한 김선영이 MVP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배구 월드컵 결승진출 무산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월드컵결승진출 무산됐다.

한국은 21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콜로세움에서 열린 세르비아와의 월드컵결승 L 조 리그 예선 3주차 최종전에서 세트 스코어 0-3(18-25 16-25 23-25)으로 패했다. 한국은 5승4패(승점 13점)를 기록해 8팀이 겨루는 결승리그 진출에 실패했다.

세르비아의 높은 블로킹에 막혀 1세트를 내준 한국은 2세트에서 계속된 실책과 황연주의 공격 실패로 점수 차를 좁이지 못했다.

3세트에서 한국은 분위기를 몰아가며 8-3으로 달아났으나 세르비아의 파워에 밀려 15-15 동점을 허용했다. 이후 역전과 동점을 반복했지만 결국 한국은 세르비아에 무릎을 꿇었다.

/연합뉴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계절별미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기본 3인상 이상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락